

보도시점

2024. 5. 21.(화)

배포

2024. 5. 21.(화)

OECD 개발원조위원회(DAC), 동료검토(Peer Review) 결과 전년대비 규모 31% 증가, 인도적 지원 2배 증가, 기후관련 ODA 비중 확대 등을 강점으로 평가

- 2010년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이래 세 번째 동료검토(Peer Review) 실시 -

- 우리나라에 대한 「OECD 개발협력 동료검토*」 보고서 발간 행사가 5월 21일(화)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, 「카르스텐 스타우어」 OECD DAC 의장 등 우리 정부와 OECD 관계자를 비롯해, 민간기업, 시민사회 및 학계 등 관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.

* 동료검토(Peer Review) : OECD DAC은 매년 4~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ODA 정책 및 집행에 대한 회원국 상호 검토를 통해 정책·제도 개선 도모

- 우리나라가 2010년 OECD DAC에 가입한 이래 세 번째로 실시*된 이번 동료검토에서 OECD는 그간 우리나라의 ODA 정책과 이행현황 전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. (상세 별첨)

* 제1차 동료검토(2012년) 및 제2차 동료검토(2018년)

- OECD는 ▲ODA 규모 지속 확대, ▲정부-시민사회 파트너십 공식화, ▲그린 ODA 비중 확대, ▲지원수단 다양화로 코로나19 팬데믹에 유연하게 대응한 점 등을 우리나라 ODA의 강점으로 평가했습니다.

▲(ODA 규모) 2024년 ODA 규모가 전년대비 31% 증가, 인도적 지원 2배 증가 등

▲(파트너십) 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방안에서 상호 책임성 확보를 위한 31개 지표 활용

▲(그린 ODA) 기후 관련 ODA 비중이 2015년~2019년 20%에서 2021년 35%로 증가

▲(지원 수단 다양화) 프로그램 차관으로 협력국 수요 연계 강화 및 비구속성 원조 비중 확대

- 한편, ▲다자기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, ▲프로그램 통합을 위한 현지 권한위임, ▲ODA 분야 인력 확충, ▲민간부문 사업에 대한 위험 수용 확대를 위한 지원 등은 향후 발전 과제로 보았습니다.

-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정부가 금년 ODA 예산을 전년 대비 31% 증액한 6.3조원으로 편성하는 등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,
 - 이번 동료검토 결과가 향후 우리나라 ODA 발전을 위한 노력에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.
- 「카르스텐 스타우어」 OECD DAC 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동료검토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간 한국 ODA의 진전 사항을 평가하고 권고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.
- 향후 정부는 금번 동료검토를 통해 수렴한 다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의 개발협력 정책 및 이행체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.

※ (첨부1) OECD 동료검토 보고서 주요 내용
 (첨부2) OECD DAC 「2024 동료검토 보고서」 권고사항
 (첨부3) OECD DAC 및 동료검토(Peer Review) 개요

담당 부서	외교부 개발의제정책과	책임자	과 장	최기천 (02-2100-8131)
		담당자	사무관	황혜정 (02-2100-8132)
	국무조정실 대외협력과	책임자	과 장	강정실 (044-200-2154)
		담당자	사무관	전신영 (044-200-2168)
	기획재정부 개발금융총괄과	책임자	과 장	장의순 (044-215-8710)
		담당자	사무관	김정도 (044-215-8715)

